

한전공대법 “2말 3초 국회 통과” 목소리 커진다

4개월째 상임위 계류 ... 민주 정치력·국민의힘 ‘호남 동행’ 시험대
법안 처리 ‘데드라인’ 넘기면 내년 3월 정상 개교에 큰 차질 우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이하 한전공대특
별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당초 목표로 한 2022년 3월 개교를 위
해서는 2월 임시국회, 늦어도 3월 초 임시국회에
서는 한전공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반대
로 4개월째 소관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개교를 위한 대학 설립 인가는 물론 학교 발전의
핵심 요소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5월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 역시 한전공대특별법 및 시행령 제
정 이후에야 가능한 상황이다. 한전공대특별법 제
정을 위한 ‘데드라인’을 앞두고 한전공대 최초 설
계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력이 시
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삼진강 물난리 이후 즐기차게 ‘호남 동행’을 주장
해 온 제1야당 국민의힘의 진정성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신정훈(나주·화순) 의원
등 51명의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제안한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이날 현재 소관 상임위
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1월 26일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됐
고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소위에 넘겨졌
으나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대학 구조조정 위기 상황
에서 한전공대 설립이 타당하지, 한전의 낙후하지
않은 현재 형편에서 대학 설립이 적절하지 등을
따지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산업부와 전남
도 측은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법 제정을 통한 지
원은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에너지 과학기술 및
관련산업 생태계 혁신과 발전은 견인하는 데 필수
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일부에선 한전의
적자 문제를 걱정하지만 2021년에는 흑자였고 자
주 변동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한
전이 전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고 주
장한다.

한전공대 설립 관련 특별법 제정에서 여야의 입
장 차가 드러난 가운데, 국회 산자위는 이달 18일
과 25일 법안을 심사할 소위를 열 것으로 알려져

면서 민주당의 협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법안의 소관 상임위 통과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
늦어도 3월에는 한전공대 법안이 제정돼야 내년
정상 개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한국전력은 2월 법률안 제정, 4월 시
행령 제정을 거쳐 교육부 동의 아래 산업부가 한전
공대 설립을 인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거쳐
오는 5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와 함께 신
입생 모집 요강을 내놓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
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개교 10개월 전
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의무화하고
있어 한전공대의 경우 오는 5월이 마지막 노선이다.
이와 함께 5월 초 대다수 국내 대학들이 신입생 선
발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우수 인재 확보
를 위해서는 2월 중 특별법안 통과가 한전공대의
정상 개교의 임계점이라는 주장이다.

한전공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교
시기가 2025년이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
고 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 설립 주체가 개
교 12개월 전까지 교사(校舍) 준공 후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대로라면
교사 확보가 돼 있지 않은 한전공대의 경우 설립
인가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법
안이 “한국에너지공대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
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는 특
례 조항을 담고 있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시
내년 개교는 가능해진다.

이에 광주, 여수, 순천, 목포 상공회의소 회장
단, 한국에너지공대설립 광주·전남 범시민 지원
위원회 등 지역 각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월 중 한전공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
의 성명이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민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당론 반발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의 반발이 여전하지만,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월 국회, 늦어도
3월 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상한
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도시계획위 운영·위원 위촉방식 대폭 개선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위원 위촉 방
식 등을 대폭 개선한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지
방도시계획위원회 지침을 참고해 도시계획위원
총 위촉 횟수는 3회, 연임은 2회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위원 30명 중 6명이 3회 이상 중임해 특정
인에게 참여 기회가 편중됐고, 위원회 심의도 수
년간 부결 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형식적이라는 지
적 등을 반영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에 당사자와 접촉한 위원은 해당 회

의에서 배제하고, 사전에 접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위원은 해촉할 예정이다. 사전 검토도 기존 회의
전 심의 안전 신청부서, 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더
해 3단계계를 거친다. 또 회의 개최 3일 전 일시, 안
건, 장소를 공지하고 심의 결과는 30일 이후 회의
록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특히 현실적
으로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지만, 가
급적 건축·환경·문화·경관 등 분야에서도 여성위
원 위촉 규정을 완화해 성비를 맞추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매화는 추위에 떨어져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눈 앞에 다가온 봄을 시샘하듯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친 15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교정에
홍매화가 만개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6일부터 광주·전남서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요양병원·의료기관 종사자 우선
첫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오는 26일부터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첫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AZ) 사의 백신으로 국내 초도 공급 물량은 76만
명분이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의료기관 종사
자 등이 우선 접종된다. AZ 백신에 이어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3월 초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공급
된다.

〈관련기사 2면〉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코로나19 예
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과 일정을 공개했
다.

광주시는 오는 26일 만 65세 미만 요양시설 이
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작한다. 광주시는 11월 전까지 시민 145만여명
가운데 70%인 101만5000명 이상에게 백신을 접
종, 집단 면역을 이루고 일상을 회복한다는 목표
를 세웠다. 4만5000명분의 AZ백신에 1차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 내 153개 요양병원·시설, 정신요
양·재활 시설 입원(소)자, 종사자 1만8064명이
가장 먼저 접종하게 된다. 병원에서는 자체로 접
종하고 요양시설 등은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팀이 찾아가 접종한다.

비슷한 시기 106개 병원 종사자 1만4415명도
의료기관별로 또는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는다.
119 구급대, 역학조사·검역·검체·검사·이송·실험
요원들도 우선 접종 대상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 치료 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의
료진과 종사자도 1분기 내 접종 대상자에 포함됐
다. 광주 6곳, 전북 6곳, 전남 7곳, 제주 3곳 등 22
곳 5000여명이 대상으로, 다음 달 중 화이자 백신
을 접종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에 마련된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에
서 10% 안팎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자체
적으로 접종한다.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게 될
자치구별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2분기에나 접종을
개시할 것으로 광주시는 내다봤다. 시민 대다수는
이들 접종센터와 479개(잠정)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된다.

▶6면
광주글로벌모터스, 안전 불감 여전

▶18·19면
굿모닝 예방 - 싸목싸목 순천 한바퀴

▶22면
KIA 정명원 코치, 투수 왕국 재건 나섰다

전남도는 국내 첫 공급 백신인 AZ 백신 76만명
분 가운데 약 3만명분(2회 접종분 6만도스)이 전
남에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AZ 백신
우선 접종 대상군에 64세미만의 요양병원 등 요양
시설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 1차
대응요원으로 정했다. 구체적 인원은 요양병원
8930명, 요양시설 5763명, 의료기관 1만1894명,
코로나 대응 4090명이다. 전남도는 오는 19일까
지 AZ 백신을 접종할 요양병원, 요양시설 대상자
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안으로 화이자 백신 접
종 대상자도 확정한다.

전남도는 화이자 백신 우선 접종 대상군으로 감
염병전담병원(공공병원 등) 5개소, 중증환자 치
료병상 1개소, 생활치료센터 1개소 의료진 등 종
사자로 정한 상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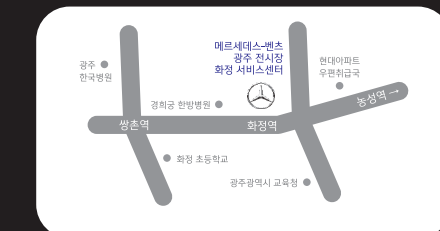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ot An SUV. An AMG.
Mercedes-AMG SUV Family.
#PerformanceAdventure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Mercedes-AMG를 직접 경험 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2-0001 & 행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해장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당동 516(수원동)

소호·메르세데스 (062)942-2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당동 516(수원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41-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당동 516(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55kg, 지동9단), 복합연비 8.3km/ℓ, 도심연비 7.5km/ℓ, 고속도로연비 9.6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12g/km
Mercedes-AMG G 63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605kg, 지동9단), 복합연비 5.7km/ℓ, 도심연비 5.4km/ℓ, 고속도로연비 6.3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319g/km
Mercedes-AMG GLE 45 4MATIC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605kg, 지동9단), 복합연비 5.7km/ℓ, 도심연비 5.4km/ℓ, 고속도로연비 6.3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319g/km
Mercedes-AMG GLS 45 4MATIC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605kg, 지동9단), 복합연비 5.7km/ℓ, 도심연비 5.4km/ℓ, 고속도로연비 6.3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31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장기 저유미는 국내 시판과 다를 수 있습니다.